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제7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13:30 ~ 16:00
2. 장 소 : 우리 회 강당
3. 회의통지 일자 및 방법 : 2018. 11. 19(월) 등기우편
4. 참석임원
(이사) 정용근, 임부웅, 설태호, 김경희, 김정오이사
(감사) 홍현국감사
5.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재적이사 7명 중 5명, 재적감사 2명 중 1명이 참석하여 개회성원이 되다.
 - 말리홀트이사장이 병환으로 불참하여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용근이사가 의장이 되어 13:30에 개회를 선언하다.
6. 대표기도
김경희이사가 대표기도를 하다.
7. 전회의록 채택
 - 의장이 배부된 회의록에 대하여 이의를 구한 즉, 이의가 없어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다. (동의: 임부웅이사, 재청: 설태호이사)
8. 심의안건 채택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다. (동의: 임부웅이사, 재청: 김정오이사)
 - 제1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2호 2018년도 예산전용 및 추경(안)
 - 제3호 규정개정(안)
 - 제4호 기본재산처분(안)

9. 결의사항

제1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별책자료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동의: 임부웅이사, 재청: 설탰호이사)

[논의사항]

- 예산소위원회에서 정한 '홍보비 예산 2억원 삭감'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김정희이사)라는 질문에, 소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달력 및 수첩, 소식지 발행 수량을 일부 조정하고 방송광고 횟수를 줄였다'고 하면서, '모금이 증가되어 자금의 여유가 되면 이를 추정하여 방송광고를 다시 늘이고자 한다'(김호현회장)고 하다.
- 해외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는가?(임부웅이사)라는 질문에, '별책자료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월별 세부계획서도 마련되어 있다(김호현회장)라고 하자, 해외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57,000천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산소위원회에서 해외사업 확대추진 계획과 회장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신규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모금집행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정용근이사)고 하다. 이에 대해, 이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해외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여 현지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고 현지자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다(김호현회장)고 답하다.
- 우리 회 복지사업의 영역별 투입예산을 별지자료로 검토한 바, 정부의 위탁사업의 변화에 따라 우리 회의 사업도 변경하거나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회의 향후 주력사업을 결정할 때에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가야 한다(김정오이사)고 하다.
- 예산에는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새로운 사업과 기존 사업 중 확대하거나 줄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임부웅이사)라는 질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없으며 별책자료에 정리된 것과 같이 기존의 아동청소년지원, 미혼한부모지원, 해외아동지원사업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북한정책변화에 따라 북한지원사업 검토를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하였다(김호현회장)고 하자, 예산소위원회에서 선임회장이 새로 선임되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규예산을 기대하고 자료를 심의하였으나, 특별한 신규사업 없이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사업규모와 후원 모금을 다소 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금년 후반기에 새롭게 시작한 '퇴소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이 2억5천이 있었다(정용근이사)고 설명을 하다.

- 2019년도 전체 예산도 적자인데, 그 원인이 생활시설 직원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주요인으로 생각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정부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개선책을 만들어, 다른 생활시설과 뜻을 합쳐 정부의 지원방안을 늘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우리 회가 많은 돈을 들여 건물도 새롭게 신축하는데 늘어나는 운영비까지 우리 회가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많다(설태호, 김정오이사)고 하자, 이렇게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노사협의 대상도 아닌 이사회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한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도록 한 것에는 회장이 우리 회의 재정상황을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정용근이사)고 하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직군간의 급여 차에 대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일반직원의 급여체계 보완 등 상호의견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김호현회장)고 하다.
- 매년 직원의 급여인상분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거나, 급여인상 시기를 정부지원시설과 같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홍현국감사)고 하자, 급여인상분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면 예산의 적자 폭을 증가시켜 예산편성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고(설태호이사), 급여인상은 사업운영 실적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예산에 미리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정용근이사)고 하다.
- 일산복지타운 재건축의 사업 규모가 크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 등 관계자 모두가 진행과정을 지켜 볼 수 있도록 '건축내용, 일정, 예산 등 세부자료'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하다(정용근이사)

제2호 2018년도 예산전용 및 추경(안)

원안과 같이 2018년도 예산전용 및 추경(안)을 승인하다. (동의: 설태호이사, 제청: 김정오이사)

제3호 규정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의 다음 각 호를 수정하여 승인하다. (동의: 임부웅이사, 제

청: 설태호이사)

1. 기구표의 '이사회' 옆에 '감사'를 표시한다.
2. 기구표의 '해외지부·센터'를 삭제한다.
3. 기구표의 '홀트복지타운' 산하에 주요시설을 표시한다.

제4호 기본재산처분(안)

원안과 같이 기본재산처분(안)을 승인하다. (동의: 설태호이사, 재청: 김정오이사)

10. 업무보고

- 가. 장애인시설 건축진행 보고
- 나. 홀트강동복지관 개관 보고
- 다. 탄현동 '근린생활시설용지' 사용계획 보고
- 라. 농장매각자금 사용 및 집행 계획 보고
- 마. 기금관리 현황 보고
- 바. 단체협약 진행 보고
- 사. 주요행사 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 7건의 업무보고를 받다.]

- '장애인시설 건축 진행 보고'에 대해 일산복지타운 재건축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책임 감리가 있더라도, 완공될 때까지 건축을 잘 아는 '우리 직원으로 공사감독을 배치'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야 한다(정용근이사)
- '탄현동 근린생활시설용지 사용계획 보고'에 대해 부동산 활용계획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를 보고 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설태호이사)
- 요즘 종종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많은 아동을 위탁모가 보호하고 있는 우리 회도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관리에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설태호이사)

이상과 같이 안건 심의를 완료하고 임부웅이사의 동의와 김경희이사의 재청으로 16:00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2018년 12월 7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이 사 정 용 근

정용근

이 사 임 부 응

임부응

이 사 설 태 호

설태호

이 사 김 경 희

김경희

이 사 김 정 오

김정오

감 사 홍 현 국

홍현국